

외국인들에 대한 조선어교육에서의 발음지도

허 철 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나라의 대외적권위와 영향력이 비상히 높아져감에 따라 세계적으로 조선어를 배우려는 열의가 그 어느때보다도 강렬해지고있다.

여기에 발맞추어 외국인들에 대한 조선어교육을 따라세우자면 그 내용과 함께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내용과 함께 교육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조선어발음교육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일반화하는것은 발음지도와 그 방법을 탐구하고 혁신하는데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

외국인들에 대한 조선어교육에서 발음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발음교육이 외국어교육에서 첫 공정으로 되며 발음분야가 모국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있다는 사정과 관련되어있다.

발음이란 발음기관의 도움으로 낱숨에 장애를 주어 소리를 내는 운동 또는 그 결과에 이루어지는 말의 소리를 말한다.

발음기관이란 말소리를 내는데 참가하는 성대와 호흡기관 및 입을 비롯한 몸의 기관을 말한다.

발음기관의 구조와 운동기능은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서 차이가 없다. 그러나 발음토대가 어떻게 되어있는가, 발음방식이 세련되어있는가, 세련되어있지 못한가 하는데서 차이가 있다.

모국어의 발음토대는 어렸을 때 이루어진다. 다른 나라말을 배울 때에는 그 나라말의 발음토대를 체득하는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리 말은 발음토대가 우수하고 발음방식이 세련되어있으며 말소리체계를 실현하는 측면에서도 우수한 점을 많이 가지고있다.

조선어학습에 미치는 여러가지 요인들가운데서도 학습자(편의상 조선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을 조선어학습자 또는 학습자라고 한다.)의 모국어는 중요한 요인들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조선어를 배울 때에 학습자들의 모국어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어학습에 있어서 학습자의 모국어간섭현상은 절대로 피할수 없다. 특히 발음은 조선어학습에 있어서 학습자의 모국어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분야로 알려져있다. 물론 이 차이는 학습자의 모국어에 어떤 언어인가에 따라 클수도 있고 작을수도 있다.

학습자의 모국어에 조선어발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개별적음운의 발음에서 오는 차이와 음절구조에서의 차이, 말소리변화법칙에서의 차이 등이 있다.

실례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가 조선어를 배울 때 《불/ 뿔/ 풀》이나 《달/ 딸/ 탈》을 구별하기 힘들어하는것이나 조선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 유성음과 무성음을 구별하기 힘들어하는것은 개별적인 음운의 차이에서 오는것이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받침으로 끝나는 조선어를 발음할 때 자음뒤에 모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는것은 두 언어의 음절구조가 다르기때문이다. 또한 영어모국어사용자들이 조선어의 《국물》이나 《압력》과 같은 단어들을 자음닿기현상을 적용하여 [궁물]이나 [암력]이라고 하지 않고 글자그대로 발음하려고 하는것은 두 언어에서 일어나는 말소리변화법칙이 서로 다르기때문이다.

외국어교육에서 발음교육이 중요한것은 또한 학습자에게서 외국어발음토대가 일단 잘못 형성되면 그것이 굳어져 좀처럼 고쳐지기 힘들다는데 있다.

발음토대는 언어를 발음하기 위하여 고착되어내려오는 발음방식의 총체이며 발음기관의 운동방식과 발음관습의 총체이다. 발음토대는 해당 언어에 고착되어 계승되며 상당히 견고한것으로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어린이의 모국어습득과정과 마찬가지로 외국어습득에 있어서도 발음토대가 학습의 초기단계에 굳어지게 되므로 처음부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발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선어발음지도는 크게 제시단계와 연습단계, 생성단계로 갈라서 진행할수 있다.

① 제시단계

제시단계는 학습자들에게 어떤 특정한 소리나 그 소리의 특징과 관련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 소리를 알게 하는 단계이다.

이것은 보통 설명이나 분석, 듣고 구별하기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어떤 특정한 발음과 음운규칙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제시한다. 또한 듣고 구별하기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조선사람과 같은 자연스러운 발음이 나오도록 지도한다.

이때 학습자에게 발음을 집중적으로 들려주어 그가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고 이해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음을 가르칠 때 자음 《ㅇ》만은 단어 첫머리에서는 발음되지 않고 표기상의미만 가지며 오직 받침에서만 자기의 음가를 가진다는데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자음 19개 가운데서 받침으로 쓰일수 있는 자음글자는 16개(《ㄷ/ ㅌ/ ㅈ》은 제외)이지만 그중에서 실지 발음되는 소리는 7개밖에 없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알려주어야 한다.

ㅁ[m]

ㄴ[n]

ㅇ[ŋ]

ㄹ[l]

ㅂ, ㅍ [p]

ㄱ, ㅋ, ㆁ [k]

ㄷ, ㄸ, ㅌ, ㅊ, ㅍ, ㅍ [t]

이 일곱개의 소리들은 다 터침이 없다는것을 강조해주어야 한다.

지루감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놀이를 통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또는 학습자들끼리 듣고 구별하기 및 반응하기 등을 해볼수 있다.

② 연습단계

연습단계는 학습자가 연습을 통하여 목표언어의 발음을 모방할수 있을뿐아니라 새로 습득한 발음을 자신의 발음으로 고정시킬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할수 있도록 연습해보는 단계이다.

학습자가 연습한 발음을 자신의 발음으로 굳어지게 하기 위하여서는 대화문, 연설문, 대본 등과 같은 본문을 리용하여 학습한 내용을 실지 연습해보아야 한다. 따라서 초기에는 특정한 소리나 소리대립과 같은 형태에 초점을 두고 주로 문맥에 나타난 요소를 리용하여 연습하게 해야 한다. 대본을 소리내어 읽게 하거나 문자, 시, 대화문 등을 따라하게 하는 연습도 좋다. 다음에는 형태에만 초점을 두는 단계로 발전하여 의미, 문법, 의사소통 등에까지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 준비한 이야기를 발표하게 하는것도 좋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실지와 유사한 의사소통상황에서 자기가 연습한 발음을 적용해보도록 하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자음연습과 관련하여서는 단어의 첫머리와 받침위치에서 변화가 없는 울림소리자음들부터 받침읽기연습을 시켜야 한다.

칠판에 《가》를 쓰고 받침으로 《ㄴ》을 쓴 다음에 《간》을 읽어보게 하고 정확히 발음하도록 지도한 다음에 받침 《ㄴ》을 지우고 《ㅁ》을 쓴 다음 《감》을 발음해보게 한다.

이런 방식으로 울림소리자음들을 다 끝내면 입술소리자음 - 혀앞소리자음 - 혀뒤소리자음의 순서로 받침소리들에 대한 발음연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그다음 단어카드나 결그림, 전자직관물 등을 리용하여 받침이 있는 단어들에 대한 발음연습을 지도해야 한다.

③ 생성단계

이 단계의 목표는 제시와 연습단계를 통해 습득한 새로운 발음들을 학습자가 경험할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즉흥적이고 창발적인 발음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학습자의 언어학적, 담화적, 사회언어학적능력의 성장에 중점을 두고 고정된 본문이 없이 형태와 의미를 다 말하게 하는 조사활동, 배역해보기, 담화, 즉흥적인 연설 등의 활동을 하게 할수 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학습자들에게 목표발음외의 여러가지 요소들까지도 한꺼번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학습목표를 흐리게 하거나 주의를 분산시켜서는 안된다는것이다. 즉 학습자들에게 한번에 한두개의 발음의 특징에만 주목하게 하면서 의사소통활동을 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실례로 발음활동의 목표가 닳기이고 의사소통활동연습으로 배역해보기를 설정하였다면 학습자들에게 닳기현상에 관심을 두면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세가지 발음교육이 끝나면 인식정형에 대한 료해를 진행하여야 한다. 인식정형에 대한 료해방법에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다.

1. 단어카드들중에서 발음이 같은것을 골라보게 하기.

낮 - 낮 - 날 - 난 - 낫

입 - 잎

옷 - 엷

억 - 엇

빛 - 빛 - 빛

...

ㄴ. 단어카드로 여러가지 단어읽기를 시켜보기.

부엌 - 부엌, 밤 - 밥 - 방 - 밖, 입 - 잎, 꼭 - 꽃, ...

ㄷ. 교수자가 발음하는 단어를 단어카드에서 찾게 하기.

조선어에 대한 발음지도에서는 학습자의 능력과 수준, 그가 이미 소유하고있는 어종(대체로 모국어)을 의미한다.)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들을 적용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어발음지도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적용된다.

첫째로, 듣고 따라말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조선사람의 발음을 본보기로 듣고 따라말하게 하여 조선어발음에 습관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둘째로, 발음원리를 가르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조선어의 매 말소리에 대한 발음위치, 발음방법 등을 가르쳐주어 학습자들이 스스로 그 원리를 발견하게 하는 방법이다.

실례로 조선어의 《ㄱ》을 학습할 때에 《달/ 꿀/ 술》에서와 같이 받침에서 쓰일 때와 《소리, 나라, 다리》에서와 같이 두 모음사이에서 쓰일 때를 각각 설명해주고 반복하여 발음해보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자체로 발음원리를 파악하게 한다.

셋째로, 최소대립쌍을 연습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음운환경은 같고 오직 하나의 음운이 다른것으로 하여 뜻이 달라지는 단어들을 발음해보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개별적인 음운들의 발음상차이를 파악하게 하는 방법이다.

실례로 《달/ 탈/ 딸》이나 《불/ 풀/ 뿔》, 《자다/ 차다/ 짜다》와 같은 최소대립쌍에 대한 발음연습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ㄷ/ ㅌ/ ㅈ》, 《ㅌ/ ㄷ/ ㅈ》, 《ㅈ/ ㅌ/ ㅈ》의 발음상차이를 구별해볼수 있게 한다.

단순한 최소대립쌍에 대한 연습은 문맥이 결여되어있기때문에 조선어수준이 낮은 학습자들에게 적용하는것이 적합하다.

조선어수준이 중급이상인 경우에는 단어수준의 최소대립쌍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문맥에 나타난 최소대립쌍을 리용해야 한다.

문맥속에서 최소대립쌍을 제시하는 경우도 여러가지가 있다.

— 동일한 문장내에서 제시하는 경우

○ 우리 딸은 딸을 좋아한다.

○ 굴맛이 꿀맛처럼 달구나.

○ 밭에 들어가서 빵을 먹자꾸나.

— 두 문장의 동일한 위치에 제시하는 경우

○ 공원에 풀(불)이 났다.

○ 나는 굴(꿀)을 먹었다.

○ 아버지는 공장에서 종(총)을 만든다.

넷째로, 발음하기 힘든 단어나 표현을 연습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유사한 발음이 섞여있는것으로 하여 발음하기 힘든 단어나 단어결합, 문장

을 연습하게 하는 방법이다.

- 굴뚝벽돌 벽돌굴뚝
- 깐 푯콩깍지 안깐 푯콩깍지
- 내가 그린 기린그림은 잘 그린 기린그림인가 잘못 그린 기린그림인가.

이 방법에서는 처음에는 될수록 천천히 끊어서 정확히 발음해보게 하고 점차적으로 빨리 발음해보게 지도해야 한다.

다섯째로, 배역을 해보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학습자들에게 극대본을 나누어주고 배역을 분담해준 다음 극대본을 외우고 몸동작과 함께 실지 해보도록 지도함으로써 감정표현이나 몸짓 등과 같은 비언어적요소들도 함께 배울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이때 극대본은 학습자의 조선어소유정도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실례로 초급학습자인 경우에는 교과서의 본문을 그대로 리용하게 할수 있고 중급이상인 경우에는 실생활에 필요한 소재를 골라서 하게 할수도 있다.

여섯째로, 학습자의 말을 록음하여 평가해주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학습자의 발음연습과 자유로운 대화, 즉흥적인 연설 등을 록음하도록 하여 그 내용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또는 동료들의 평가, 교수자의 의견을 받게 하는 방법이다.

이밖에도 관련정보를 연결하기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조선어의 자음이나 모음의 발음을 지도할수 있다.

교수자가 조선어발음교육을 진행할 때에 주의할 점들에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다.

우선 조선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도 거의 무시하는 음의 구별을 지나치게 요구해서는 안된다.

실례로 조선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ㄱ, ㄴ》를 홀모음으로가 아니라 겹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구태여 홀모음으로 정확히 발음하도록 학습자들에게 지나치게 강요할 필요가 없다.

또한 학습자들에게 일단 전달된 음은 지속적으로 일관성있게 유지되게 하여야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정확한 발음을 하도록 노력하고있는가에 대해 늘 관심해야 한다.

또한 발음을 연습할 때 학습자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학습할 새로운 음을 결정할 때에 발음하기 어려운것부터 하지 말고 전체 음체계속에서 상대적인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특히 발음하기 어려운 음을 학습할 때는 비슷한 다른 음들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목적인 음으로 옮겨가면 훨씬 쉽게 가르칠수 있다.

실례로 터침소리를 먼저 배워주고 터스침소리와 된소리를 배워주어야 하며 홀모음을 다 가르쳐준 다음에 겹모음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또한 표준발음을 충분히 들려주되 너무 반복하여 학습자가 지루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정확히 발음한다고 하여 지나치게 천천히 발음해서도 안된다. 보통속도로 된 발음을 들려주고 충분히 모방해보게 해야 한다.

또한 간단한 조음법을 설명해주기 위하여 교수자는 음성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교수자가 학습자의 모국어와 목표어인 조선어의 발음상차이를 대조하여 설명해줄수 있으면 학습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수 있다.

이밖에도 조선어발음교육실천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창조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앞으로 우리는 외국인들에 대한 조선어발음교육을 잘해나가기 위한 여러가지 교수수법들을 연구하는데 더 많은 힘을 넣어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발음지도, 학습자